

**아이에스테크지회**는 수년간 지속되어온 한국지엠의 생산물량 감소정책과 군산공장 폐쇄라는 최악의 조건속에 비록 정든 조합원들을 희망 퇴직이라는 미명아래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2018년 한해 노동자가 현장의 중심이라는 기초아래 간부들과 조합원이 똘똘뭉쳐 흔들림 없이 전진하며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냈다.

지회는 2019년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에서 노동하는 조합원동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제35조 [표창] 장기근속 신설 ▲제67조[임금] 기본급123,526인상 ▲제69조[상여금] 150%인상의 지회 요구안을 준비하여 4월 26일(금) 사측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년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5월 24일(금) 4차 교섭을 진행 중이다.

전현배지회장은 “지난 2018년 한해 현장에서 땀흘린 조합원동지들의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요구안으로써 절대 과하지 않다. 조합원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회사는 댓가를 제공하여 일한만큼의 보상을 누릴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통하여 힘든 시기 노사가 협력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진정한 노사상생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라며 요구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상황등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 되고있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사측에게 충분히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제시안을 준비 할 수 있도록 5차 교섭은 6월 14일(금) 진행하기로 하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한 만큼 사측에게 성실교섭을 요구했다.

- 이은수 교선차장 -

**현대필터산업분회**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출근시간에 맞춰 전조합원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의 피땀으로 출범시킨 금속노조 파괴를 위해 전 집행부를 회유하여 금속노조 탈퇴라는 초유의 상황을 야기 시켰고, 현장 내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노노갈등을 조장했다. 관리자들은 지위를 이용하여 유독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만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아 폭언을 하며 겁박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임의로 철거한 사측에게 항의하면 “기초질서 위반”, “상급자에 대한 예의 위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징계를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히 노조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징계를 악용한 행위이다. 현장의 관리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고 있을 수 없다.

현대필터산업 자본은 스스로 부당징계라는 것을 인정하라!!



더 이상의 금속노조 탄압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징계를 철회하라!!

자랑스런 금속노조의 자존심을 걸고 모든 법적 조치를 동반한 강력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 장현석 사무장 -

**기광지회**는 사측의 상여금 일방적 삭감조치가 발단이 되어 조합을 만들고자 결의하여 2018년 7월에 설립보고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광지회를 선포하였다. 노조설립 후 사측과의 치열한 교섭을 통해 2019년 1월



에 2018단체협약을 체결 하였다.

단체협약 체결 후 사측은 기존 이사를 해임시키고, 새로운 이사가 부임하였다. 새롭게 부임한 이사는 만연된 적자를 이유로 들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25명의 인원 감축안을 요구했지만, 노동조합은 최종적으로 6명의 인원을 감축이 아닌 전환근무로 막아냈다. 지금껏 기광의 노동자들은 항상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아래 하나로 똘똘뭉쳐 안전하게 일할 권리, 해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의터전을 지킬 수 있는 고용안정, 빼앗겼던 상여금 원복과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 전 조합원의 마음을 담아 2019년 임금협상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을 하였고 6월 12일 4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사측과의 치열한 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목소리를 관철시켜 조합원 개개인이 기광지회의 조합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반드시 승리하는 2019임금협상 만들어 낼 것이다!

- 강형규 교선부장 -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현대차신평대리점 노동탄압 기획폐업 항의 규탄 분쇄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점거농성 투쟁중이다.

신평대리점 소장 한길우는 기본적인 노동환경 제공도 무시한 채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원청인 현대차가 주는 성과급 지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정규직과 똑같은 영업업무로 열심히 근무했지만 기본급, 퇴직금, 4대 보험 조차도 일체 적용받지 못했다. 한길우의 전횡과 원청 현대차의 나몰라식 차별대우에서 맞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한길우는 노조가입의 사실을 알고부터 끊임없이 탈퇴를 종용하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으며 "너희가 노조에 말없이 가입했으니 나도 말없이 폐업한다"는 기막힌 얘기를 늘어놓고, 5월10일자로 7명 대리점노동자들과 30명 가족들의 밥줄을 끊어버렸다. 신평대리점은 현대차와의 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고 실적이 양호한 대리점이다. 계약기간 중 대리점 폐업은 원청 현대차에 위약금 등 금전배상 할게 많고, 대리점소장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차와의 사전조율이나 승인이 있었으리라 의심된다.

지난 5월 23일 신평대리점 조합원 3명이 농성장을 사수하고 있을때 한길우일당 5명이 농성장에 해머망치를 들고 난입해 전시장 유리를 부수고 조



합원 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기획폐업시킨 것도 모자라서 생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해머망치 폭행상해까지 입힌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진실하고 단순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들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해머망치 폭력집단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이재운 지회장 -